藝術家와 명예

「어글리 코리언」은 누군가

五月三日字 本面에 「作家와 良心」이라는 버젓한 이름아래 게재된 김동리씨의 글을 읽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이 제목과는 달리 筆端에 게 진중된 목적 즉상을 위한 「명이라는 명성을 분명히 나는 깨달았다. 나는 理論투쟁이 아닌 이와같은 일종의 특별행위의 도전은 피하고싶다. 더구나 金씨를 상대로 이런 글을 쓴다는것은 나의 人格問題만 너무나 근지 없는 목적 중상이기때문에 金씨를 상대로하는것이 아니고 그가 주장한 「우리 藝術史를 위해서」나아갈로 이기회에 경하한 사실을 밝혀두어야하겠다.

처제로 金씨는 「우리藝術史를 위하여 산 증인이 되겠다」면서 「一九五九년 南寶씨는 그가 滯日時부터 장안면 당시의 註佛公館 金東公使로부터 한국의 唯一無二한 大家라는 추천장을 받아 「싸롱 드 메」에 出品했다」고하였는데 나는 一九五八년부터 벌써 「싸롱 드 메」에 招待를 받기시작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作品本位로 초대받은 것이다. 나의 作品을 존중하기 그얼굴하신사를 지적 계정한것이다.

「싸롱 드 메」에 招待받는것이 어떤外交官의 추천서로써 되지않는다는것을 잘알고 있으면서도 질투로 인하여 허무맹랑한 조작을 하였다는것은 그가 얼마나 모랑에 能한 人間이라는것을 스스로가 폭로하고있다. 이광貞하나만 가지고도 그의 글 전체가 허무니없는 지지밖에 지지않다는 것을 증명할수있지만 그러나 나는 「영문도도는」 藝術을 위해서 그가 손 들어 祝賀하는 것을 無限이라는 것을 다음과같이 증명하겠다.

불평 「丁」權씨가 註佛大使로 在任當時 在佛 한국인 미술가가 열렸는데 (中略) 당시 몇개월 前에 파리에서은 李應魯씨의 그림을보고 南寶씨는 이때까지하는 전단에는 전한의 색작품을 (中略) 李씨의 새그림과 특작은것을 유희 (油繪) 로 「그려졌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전연 근거없는 조작이다. 왜냐하면 李씨와 그의夫人의 渡佛수속을 내가 갖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해 왔은관계로 李씨는 「빠리」에 도착하자마자 나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나는 그를 친구로 생각함은 없었다. 사전 생겼기 때문에 나는 金씨가 많이는 李씨의 새그림을 본것이 없었을 뿐더러 나는 李世傑씨의 알선으로 李씨의 열 畫室에 이사온해서 新作품을 時間조차없이 모두 招作을 했었다. 그것은 그 전람회에 出品한 作品들과 또 당시 사무적인 일용말은 一切 鄭洋澤家 劉俊相씨가 찾아는 사실이다. 또한 大作을 다수 번었은 내가 아닌 바로 金씨 자신이었으며 그는 陳列할때 그야말로 특별장려격으로 자기그림만을 전부 좋은 位置인 一等에 제멋대로 걸어놓았기때문에 그것을 반대한 金出品작가들과 불미로운 爲爭이 일어져 그해결책으로 수천원에서 부닥을 정하자고 주장한 나의 입장이 치고, 속으로는 멸시이고 일어섰던 나의 自田가 누설 (洩漏) 된 아침에, 내생애의 本點마저 벗겨져 버린 이메울로기.

一週間 怒心이 보이지 않는 平安한 내 얼굴로 살다가 어부워가는 視力으로 밤에 헌디던 나의 발걸음, 숲속에서 空腹의 새들은 움지도 않는다.

비전한 손들이 우리를 지키는 이 놀라운 平和에도 不感이 된 나의 失明, 過動적은 땅만 보고 걷는다. 때로는 空內樂으로 허리펼기도 쌓이는 시벨리우스의 協奏曲도 듣지만, 비밀 우상으로 生活을 받으며 차라리 禪房을 차리고 싶은 山間에 悲哀紙나 바를까.

祝福도 없이 돌아온 봄의 무성한 아침 햇살을 피면서 말없는 作心으로 상아지만, 사랑을 찾아서 떠나고 싶은 에드워게.

요즈음엔 늘 마음에 어부은 수수께끼가 맺어온다 詩人은 웃하며 있는가. 詩人은 웃하며 사는가. 詩人은 眞實로 웃을 노래하는가.

東亞音壇

나의 失明

權 龍 太

孫女의 책가방을 가볍게

—서울市서대문區 趙基興씨 새궁리

○…갓 중학에 들어간 어린 손녀의 무거운 책가방을 대신 들어주면 할아버지가 한학기도 못되어 지쳐버렸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한창 자라는 손녀의 책가방이 너무 무거워 안타깝기만 했다. 이 할아버지는 손녀가 다니는 중학교에서 새로운문제는 아들에게 이제는 전교생의 三分의 二가 넘는 어깨부분에 멍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할아버지의 손녀가 다니는 중학교에서 새로운문제는 아들에게 이제는 전교생의 三分의 二가 넘는 어깨부분에 멍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할아버지는 이 문제를 가볍게 해결할 방안으로 매번 책가방을 들고다닌다.

○…올해 六十五세인 趙基興씨는 한국의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학교에 가는 손녀의 책가방을 들고다닌지 벌써 두해째 접어들었다.

趙씨는 孝娛양에게 하루에 한번씩 책가방을 들어주는 것이 할아버지의 즐거운 일이 되었다. 그러나 孝娛양의 책가방은 때론 八㎏이나 되었다.

趙씨는 孝娛양에게 하루에 한번씩 책가방을 들어주는 것이 할아버지의 즐거운 일이 되었다. 그러나 孝娛양의 책가방은 때론 八㎏이나 되었다.

趙씨는 지난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학습진도를 본 결과 교과서의 一단원이 한달정도 걸려 배운다는 것을 알고 이같은 불합리한것을 시작, 성공한 것이다.

○…지난十월 삼영여대부속중 一년八반의 시간표는 사회 국어 영어 물상 수학 생물등 六시간으로 모두 六권의 책을 갖고 오도록 되어 있었다. 六권의 책무게를 달아본 결과 二㎏이나 되었다는 한 권으로 분철된것은 불과○·四五㎏으로 四분의 一밖에 안되었다.

이에 대해 삼영여시대부중 方태섭교장은 지난해 一학기가 시작되면서 趙씨의 새로운 궁리와 학교에서 연구중이던것과 일치되어 실시하려 했으나 학기중간이라 못하고 이번 신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一학년 七百명은 거의 분철된 한권의 책만 갖고다니게 되어 학생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徐德鎭기자〉

다 배운 과목의 교과서를 갖아 학교의 책으로 연어주는 趙基興씨.

스케치

14권單元別로 한묶음

어깨펀 상명師大附中 一學年들

興씨 (서울특별시 대문區행촌洞 一의八) 는손녀 孝娛양 (一三) 이 지난해 세검정洞에 있는 상명여사대부속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가볍은 손녀가 들고다니는 책가방이 무거워 이를 대신 들어주기시작했다. 그것은 孝娛양이 버스타는 시간이 불과十분도 못되는 데 해비집에서 버스정류장 버스에서내려 학교까지 걷는 시간이 무려 四十분이 넘어 어린손녀가 지쳐버리기 때문이다.

신발주머니와 체육복을 넣는 가방까지 합쳐 孝娛양의 책가방은 때론 八㎏이나 되었다.

趙씨는 孝娛양에게 하루에 한번씩 책가방을 들어주는 것이 할아버지의 즐거운 일이 되었다. 그러나 孝娛양의 책가방은 때론 八㎏이나 되었다.

趙씨는 孝娛양에게 하루에 한번씩 책가방을 들어주는 것이 할아버지의 즐거운 일이 되었다. 그러므로